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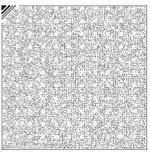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73호

2021년 12월 26일(다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 집회 3,2-6.12-14<또는 1사무 1,20-22.24-28>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콜로 3,12-21<또한 1요한 3,1-2.21-24>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 2,41-52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이광휘 베드로 신부 | 해외선교(프랑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시편 128, 1)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이른 죽음은 부모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아파하며 살아간다는 말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본당 자매님 한 분의 아기(가브리엘)가 태어나자마자 하느님 품에 안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당의 모든 신부들과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했고, 남은 가족들은 서로 안아 주고 위로해 주며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공동체가 있기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성탄 팔일 축제 내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나자렛 성가정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모범을 본받아 신앙 안에서 화목하게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기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성가정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이 가정은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다는 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상상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정은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촌 동네의 목수 집안이었기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머나먼 타향살이로 힘겨운 생활을 해

야 했던 난민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치욕적인 십자가상의 죽음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 성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 생활이 어렵고 힘겨웠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가정은 가난과 어려움, 고통 등 불행의 요소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다지도 세속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가정을 왜 성가정이라 부르면서 이 가정의 모범을 따르라 권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가정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순종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가정의 가장이 되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아들의 잉태 소식에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강생(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심)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순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가정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충실히 걸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이 성가정을 본받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동정과 호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고 사랑하며, 평화 안에서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풍수원성당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루카 2,52)**

예수님은 나이에 비례해서 하느님의 은총도 충만해졌습니다. 그 은총의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있었지만, 성장하시면서 더욱 자라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가정 안에는 성령께서도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성가정에 충만한 은총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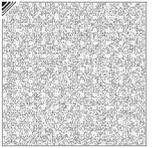
진완선 바오로 | 가톨릭사진가회



하느님의 선물,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



홍미라 루치아 수녀
인보성체수도회 서울 인보의집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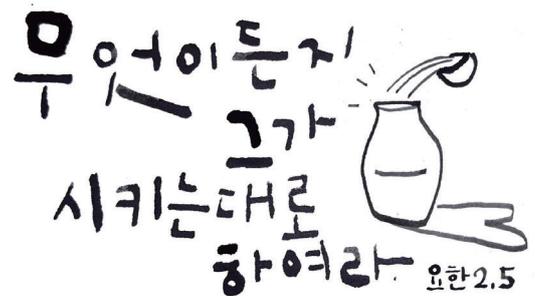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면서, 성탄 팔일 축제 중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005년, 뇌 병변 중증 장애인 시설 요한의집에 사회복지사로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좋아했던 주말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탤런트 김해숙(비비안나) 씨가 어머니 역으로 나온 ‘부모님 전상서’입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도 부족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를 유난히 좋아해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가 탤런트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를 만나게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들이 하늘의 별을 따 달라면 따다 주실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던 수녀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미라 수녀, 아이들이 김해숙 씨가 보고 싶다니깐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봐요.” “(웬 날벼락), 어떻게요?” 하니, “그거야 담당 사회복지사의 몫이지.” 그렇게 해서 저는 방송국의 ‘부모님 전상서’ 팀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벚꽃이 만개한 부활절에는 방송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김해숙(비비안나) 엄마의 안내로 요한의집 가족들은 드라마 세트장도 볼 수 있었고, 자녀로 나왔던 젊은 연예인들도 만났지만, 아이들은 예쁘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에게는 시큰둥, 오로지 김해숙 엄마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면 요한의집 가족들은 봉사자, 후원자님들을 초대하여 성탄 예술제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은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도 성탄 예술제에 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초대했지만, 지방 촬영이 있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실망은 컸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탄 예술제를 시작하려는데, 현관으로 흰색 배 한

대가 들어오더니, 김해숙(비비안나) 씨가 내렸습니다. 촬영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아이들을 보기 위해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깜짝 선물로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를 선물로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중증장애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온몸으로 연극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봉사자, 후원자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김해숙(비비안나) 엄마는 성탄 예술제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몸은 불편하지만 행복한 아이로, 지금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행복해지는 성탄절의 소중한 기억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줍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을 돌아봐 주세요.

누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장자윤 정혜엘리사벳 | 대전교구 천안쌍용동성당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히 멈추게 하소서!

2005년 감독 크리스티앙 카리옹

해마다 성탄절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7)는 그분의 말씀이 되새기며 이 땅에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평화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주님의 섭리를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이며 실천입니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 프랑스 북부 전선. 불과 100m 거리를 두고 독일 군대와 프랑스, 스코틀랜드 군대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전투로 젊은 생명들이 무참히 쓰러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불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과 고통의 신음 소리가 이어지는 그곳에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옵니다.



독일군에 성탄 트리가 전달되고, 성악가인 장교 슈프링크는 황제의 특혜로 면회를 와서, 후방으로 가자는 아내 안나에게 “오늘 밤만은 동지들을 위해 노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때마침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고향을 꿈꾸네>를 합창하고, 그 노래가 끝나자 슈프링크가 어느 병사의 하모니카 연주에 맞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브 하루 동안만 휴전합시다.”

독창은 합창이 되고, 독일군의 성탄 트리가 참호 밖에 세워지자, 병사들은 총을 놓고 걸어 나와 한자리에 모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의무병으로 참전한 팔머 신부의 백파이프 연주에 독일 병사들이 <어서 가 경배하세>를 부르고, 안나의 <아베마리아> 열창에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언어가 달라도 샴페인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초콜릿과 담배를 건네주고, 지갑에 간직한 아내의 사진을 서로 보여주고, 카드놀이를 하면서 그들은 적이 아닌 ‘서로 마음을 함께 하는 이웃’이 됩니다. 미사를 집전한 팔머 신부는 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겨울에 불가로 끌리듯 제단으로 왔습니다. 어찌면 함께 있기 위해, 어찌면 전쟁을 잊기 위해.”

그들의 성탄절 기적은 하루 더 이어집니다. 세 나라 병사들은 들뜬에 버려두었던 동료들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 묻어주고, 후방에서의 포격을 서로 알려주고는 함께 참호로 피해 목숨을 지켜줍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갈 때 <올드 랭 사인>을 부르고 서로가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오와 적대감을 부추기며 그들을 전쟁터로 내몬 자들은 그 ‘평화’를 적군과 놀아난 반역으로 규정해 팔머 신부를 쫓아내고, 독일군 부대는 해산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팔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생애 가장 중요한 미사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독일 병사들은 참혹한 러시아 전선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애잔하게 스코틀랜드의 <고향을 꿈꾸네>를 콧노래로 부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1914년 겨울, 독일 점령하의 벨기에 이프레스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날의 ‘기적’을 만든 군인들은 계속된 전쟁에서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평화는 성탄절 하루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전쟁도 영원히 사라져, 인간, 나아가 모든 생명체가 언제나 공존의 기쁨을 누리는 평화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오늘(12월 26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26일~2022년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제21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토)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보좌주교들의 인사발령(시행일자: 2022년 1월 1일)

유경춘 주교	청소년담당 교구장대리와 ACN 한국지부 이사장을 겸임합니다.
손희승 주교	서서울지역담당 교구장대리를 겸임합니다. 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과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을 겸임합니다.
구요비 주교	수도회담당 교구장대리와 시복시성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7년 12월 27일 정치윤 이냐시오 신부(59세)

2022년 ‘서울주보’ 필진 안내

표지 사진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생명의 말씀(첫째주)	정순택대주교·유경춘주교·손희승주교·구요비주교
생명의 말씀(둘째주)	김상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생명의 말씀(셋째주)	김한수 신부(종로성당 주임)
생명의 말씀(넷째주)	정수용 신부(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생명의 말씀(다섯째주)	하성용 신부(사회사목국 부국장)
생명의 말씀	특별 주일·기도의 날: 해당 사목 담당 신부
사랑의 손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신학	조한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성경	허영엽 신부(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환경	백종연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시노드 특집	양주열 신부(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영화칼럼	이대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음악칼럼	임주빈(KBS프로듀서, 심의위원)
과학칼럼	김도현 신부(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건축칼럼	김광현(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미술칼럼	정용모 신부(교구 성미술 담당)
이달의 유튜브	김광두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주보’를 통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필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는 [홈페이지 cc.catholic.or.kr]와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구정일령

직장인 금요미사 재개 안내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직장인 금요미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문화관 2층 소성당(명동)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2022년 1월3일부터 매주(월)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사목국 2022년 월요 성경

내용: 창세기 탈출기 통독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2022년 1월5일(수) 13시~17시
곳: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
회비: 1만원 / 계좌:우리 010-8889-5425 조창수 신부
문의: 010-7586-5425 황테레사(문자로 문의)

2022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상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초·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구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콘서트바토리 과정)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원서접수: 2022년 1월10일(월)~21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문의: 02)393-2213~5(<http://www.casm.site>)

하반기	개강일정	2022년 3월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서울대교구 사목 상담, 대면 수업

주제: 자존감 되찾기 / 강사: 문종원 신부
때: 2022년 1월8일~4월9일 매주(토) 오전 10시~12시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최우주 신부(예루 및 멕시코 선교 후 귀국)
때: 2022년 1월6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접수: 12월30일(목)~2022년 1월3일(월) 인터넷 접수
교리문답: 2022년 1월10일(월)
입학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선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제6회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정기전 #담당: 전관
전시일정: 12월28일(수)~2022년 1월3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2월30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노인복지위원회 / 문의: 02)727-2247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문의: 02)921-5093
때: 2022년 1월 영상 온라인 교육 / 2월~4월 매주(금) 14시~17시 심화 교육(교정사목 센터) / 회비: 10만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00차 미사 12월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서울대교구 안악 분당, 은율 분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신임사목위원교육(온라인)

대상: 분당 신임사목위원 / 회비: 1만원(1월21일 마감)
때: 2022년 1월28일(금)~2월28일(월)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분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 성사를 받은 교우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교육기간: 2022년 2월9일~7월6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신청기한: 1월28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인준단체 알림

모임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때: 2022년 1월6일~9일, 1월20일~23일, 2월10일~13일, 2월24일~27일(각 3박4일) / 문의: 02)990-1004
 곳: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효순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글라라
 때, 곳: 2022년 1월7일~10일·1월21일~24일·2월25일~28일·3월11일~14일·3월25일~28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2022년 신년 맞이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내용: 미사와 성체조배(성체거동)
 대상: 청년 및 가톨릭 신자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2022년 1월8일(토) 15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주최: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눈꽃산행피정: 1월8일~10일, 1월21일~23일, 1월28일~30일, 2월6일~9일, 2월12일~14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제99차	2월18일(금)~26일(토)	

가정선교회 2022년 1월 행사

미사와 식수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 777-1773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월5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 성모 신심미사	1월8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 개강

때: 2022년 1월25일(화) 오후 2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수시 가능 /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양업고와 함께하는 행복한 겨울캠프

대상: 중학교 1~2학년 / 회비: 15만원
 때: 2022년 1월7일(금)~9일(일) 2박3일
 곳: 양업고등학교 / 문의: 043)260-5078
 12월27일부터 양업고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메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2022년 2월9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2022년 1월11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일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1월6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28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각 5~6명
 개강: 2022년 1월4일(기초·초급반), 1월6일(중·고급반)
 접수: 12월26일~1월6일(선착순) / 문의: 010-6219-1575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2년 1월 개강)

안전한 강의 환경을 위해 현장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6주 과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의식(양식)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매주(목) 동영상 링크 발송	권오면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최고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접안-집회서	현장 강의: 매주(화) 19시30분~21시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주원준 박사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2022년 1월18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계 3년 넘은 견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2022년 1월3일(월)부터 10주
 주최: 아쿠나소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모집

티없으신 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8503-0228 양성 담당 수녀, 010-8636-1659 서울지부 회장

미사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12월30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낮제주(일) 12월26일·2022년 1월23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인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소통과 관계 훈련 (비수박집단)	2022년 1월14일(금)~16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사목상담	성경,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사목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 1522-9415

가톨릭신문사 직원 모집 / 문의: 010-5118-4285

분야: 취재기자(신입) / 2022년 1월3일(월)까지 접수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 대상: 견진 성사 받은 대졸자, 주일학교 교사 경력자 우대
 업무기간: 2022년 3월2일~2023년 5월31일
 2022년 1월15일(토)까지 이메일(kycca@catholic.or.kr) 접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직자 추천서, 교적 사본
 홈페이지(www.kycc.or.kr) 참조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공회방의방선교회	2022년 1월2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모 승천 수도회	수시	본원(광주광역시)	010-3771-5098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010-4241-1210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천주교 서울 국제 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12월 추천 도서

비바람을 이겨낸 뒤 예쁘게 피어나는 꽃처럼 당신의 밤도 저물고 곧 해가 뜰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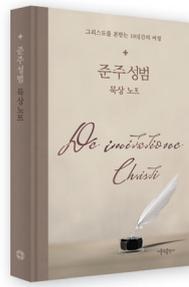
신간 도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개정)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16가지 순간'

| 조앤 치티스터 지음 | 20,000원

세계적인 가톨릭 영성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앤 치티스터 수녀가 코렐렛서에서 발견한 인생의 지혜를 전해 줍니다. 다가오는 2022년, 더 넓은 시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조앤 수녀가 건네는 영적인 메시지에 귀기울여 보세요.



신간 도서

준주성범 묵상 노트

묵상과 필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100일간의 여정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4,000원

본서의 내용 중 꼭 새겨 보아야 할 구절을 발췌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며 나만의 영적 독서 노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가르침과 삶의 지혜가 담긴 문장을 한 글자씩 직접 써내려가다 보면 더 굳은 신앙을 다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간 도서

오늘 기도 노트(개정)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적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1,000원

《오늘 기도 노트》는 기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노트입니다. 기도 지향, 기도 계획, 오늘의 기도를 쓰며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일 기도, 9일 기도, 전례시기에 따른 기도 등 그때그때의 특별한 지향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새해 추천 도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줄 가톨릭

2022년을 날마다
신앙을 배우는 해로!

| YOUCAT 재단 지음 | 16,000원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아 온 YOUCAT 시리즈! 새해를 맞아 하루에 한 줄씩 배울 수 있는 가톨릭 교리 달력과 함께 2022년을 시작해 보세요. 쉽고 명쾌한 문답 형식의 교리 해설이 그대로 담겨 있어 매일 하느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신앙이 깊어질 것입니다.



새해 추천 도서

결정을 앞둔 당신에게

후회 없는 결정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결정 지침서

| 마이클 스캔란 지음 | 13,800원

그리스도인은 결정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새해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앙 안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을 만나 보세요. 좋은 결정을 만드는 5단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결정에 필요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추천 도서

결정이 두려운 나에게(개정)

안셀름 그린 신부가 말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결정의 힘

| 안셀름 그린 지음 | 15,000원

우리가 내린 수많은 결정 중에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결정'을 통해 쌓인 영양분으로 또 한 뼘 자라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謹 賀 新 年

恩寵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와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송년 감사미사 · 대축일 미사 》

◎ 2021년 송년 감사미사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1년 송년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 12월 31일(금) 평일미사 모두 봉헌합니다.

† 12월 31일(금) 밤 11시

- 주례 :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주교님

☞ 송년미사 참례 시

‘주차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토요일)

- * 미사 : 주일미사 시간과 동일
(※ 단, 오전 7시 미사는 없음.)
- 교중미사 주례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 미사 후 대주교님과 새해 인사

《 견진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성령의 특은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실 분들에게 축하와 함께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6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주례 :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주교님

※안전을 위해 오후 2시 미사는 견진 당사자와 관계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다른 시간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고해성사 휴무

12월 24일(금)부터 2022년 1월 1일(토)까지 상설 고해성사는 없습니다.

◎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본당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 · 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2022년 1월 예비신자 교리반

코로나19 백신 접종(2차 접종까지) 완료자에 한하여 교리반 신청이 가능하오니 1월 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불가)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일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2호	김주신 (멜키올) 신부
토요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마리헬렌 수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 준비물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본당 재정 및 교무금 책정

어려운시 중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본당의 재정은 현금, 교무금, 헌배 봉헌금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헌배 봉헌금이 명동(옛 계성여고) 발전기금으로 교구에 전액 봉헌되고 있으며, 신자분들께서 봉헌해 주시는 현금과 교무금만으로 본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무금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2021년 12월 1일 기준, 본당에 교적을 둔 세대수는 총 19,533세대이며, 이 가운데 교무금을 책정하신 세대수는 2,699세대로 전체 13.8%에 불과합니다. 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2022년도 교무금 책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2년도 하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천

·추천일시·장소 : 1월 14일(금) 오후 2시 / 대성당
☞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13-12/19).....50,098,000
 - 대림 제 4 주일 현금.....16,705,000
 - 감사헌금 (12/13-12/19).....4,816,000
- 김 라파엘 / 김 레지나 / 김 마리스텔라
김 미카엘 / 김 요아킴 / 남 마티아
문 대건안드레아 / 송 아녜스 / 이 아녜스
임 그라시아 / 임 사무엘 / 장 파비올라
조 모니카 / 진 크리스티나 / 최 베로니카
현 베로니카 / 익명(1)